

셰프, 에드워드 권

크리에이티브 요리의 비밀 열쇠

유명 요리사가 자신의 브랜드만을 빌려주는 식당과 직접 운영하는 식당이 있다. 에드워드 권에게 있어 QTV '에드워드 권의 예스셰프' (이하 '예스셰프 2', 지난 8월 20일 종영)는 말하자면 후자에 가깝다. 무작정 서울로 상경해 경양식집 주방 아르바이트생에서 버즈 알 이람의 수석총괄주방장까지 이른 이 입지전적 요리사는 자신이 경험했던 치열한 주방의 경쟁 논리를 그대로 '예스셰프 2'에 적용한다. 이제는 시그니처가 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라는 차가운 탈락 멘트와 함께.



강하지 않는 자, 인정받을 수 없다

Q '에스셰프 2'는 시즌 1보다 냉혹한 이미지로 비춰지고 있다. 어떤 음식 평론가가 '당신이 신인가.'라며 나를 비판한 걸 봤다. 그 사람은 프로그램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다. 내가 신이라서 '당신은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이름표를 떼는 게 아니다. 떨어진 사람이 셰프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도 아니고, 단지 각 미션에서 다른 도전자에 비해 평가가 낮아서 떨어진 것뿐이다. 물론 셰프를 꿈꾸는 후배들에게 나의 액션이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한다. 하지만 그걸 상처로 받아들인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그걸 또 다른 성공의 발판으로 삼아야지.

Q 그래서 주방이 얼마나 치열한지를 보여주려 하는 것 같다. 가혹한 조연이 필요한 공간으로서.

내가 원하는 건, 강한 사람이다. 그렇지 않으면 외국 나가서 살아남기 어렵다. 쉽게 말해 프렌치 요리하는 게 거의 다 프랑스 사람들인데 한국인이 거기 가서 프렌치 요리하겠다고 하면 어떤 반응이겠나. 뒤집어 생각해보자. 프랑스 사람이 한국에 와서 한식을 한다고 할 때 과연 한국 요리사들이 쉽게 인정해줄까. 프랑스인이 한국에서 30년 동안 살아서 말도 내국인 수준으로 하고 궁중 한식 전문가 타이틀을 땀다고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궁중 한식 전문가로 쉽게 받아들이일까. 강하지 않으면 쉽게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독하게 가려는 거다.

Q 정말 치열한 과정이지만 단 12회의 서바이벌 쇼를 통해 당신이 원하는 만큼 강한 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충분히. 단순히 요리를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다. 시즌 2에서 찾고 있는 글로벌 셰프는 현재의 셰프가 아닌, 향후 10년, 15년 후 강인한 셰프로 성장할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다.

Q 보고 있으면 단순히 요리가 아니라 뭘 해도 잘할 사람을 뽑는 것 같다.

뭘 해도 살아남을 사람이 어떤 요리와 붙어도, 어떤 셰프와 붙어도 살아남을 수 있다. 그런 멀티 플레이어, 그것도 발전 가능성 있는 멀티 플레이어를 찾아가고 있고, 그런 면에서 마지막 우승자뿐 아니라 현재 살아남은 도전자들은 모두 다 잘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미션마다 치고 가는 걸 보면 '내가 재네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때도 있다.

절박함이 있다는 것,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Q 그중에서도 요리를 하는데 가장 필요한 재능은 뭐가. 우선은 아이디어가 좋아야 한다. 어떤 물건을 봤을 때 전혀 다른 물건으로 풀어헤칠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 기능을 가르치는 건 누구나 똑같이 가르칠 수 있다.

얼마나 많은 책을 읽고, 얼마나 연습을 하고, 똑같은 식재료를 봐도 전혀 다르게 접근하는 능력의 차이점, 가령 콜라를 두고 어떻게 변형시키겠냐고 물을 때 캔디로 만들겠다고 한다 치자. 하지만 탄산수가 날아갈 텐데? 그러면 팝핑 캔디로 만들어 툭툭 튀는 청량감을 대신하겠다고 하는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다. 그런 걸 키울 수 있는 셰프가 식당에서 치고 나갈 수 있다.

Q 본인은 힘든 순간을 어떻게 견뎌내며 지금의 커리어를 쌓았나? 나는 절박했다. 항상 벼랑 끝에 있었기 때문에 떨어지지 않으려고, 살아남기 위해 미친 듯이 살았을 뿐이다.

Q 그럼 왜 요리였나.

그때 내가 선택한 게 요리여서 그랬을 뿐, 어떤 걸 해도 똑같이 절박했을 것이고, 똑같이 남보다 앞서고 싶었을 거다. 만약 내가 자동차 외판원을 했다면 대한민국에서 제일 차를 많이 파는 사람이 되려 했을 거다. 인생 안에서 절박함을 가지고 있으면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스스로 벼랑 끝에 있다고 생각하면 일에 대한 스트레스가 남보다 훨씬 많겠지만 그걸 극복하기 위해 훨씬 많이 공부하고 노력할 거다. 그래야 만족할 수 있는 거다. MEDICHECK